

민 승 열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by Min Seung - Ryeol

고귀한 삶이 용솨음치는 「요한의 집」

"House of St. John" - A Place of Noble Life

올해는 창업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완성된 건축물과 뜻을 이루지 못한 습작들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많은 정열과 시간을 투자한 작품들에 대해 큰 애착을 느낄 수 있었다. 초기 설정한 계획 목표대로 이용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작품들은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 하나 있다. 천주교 인보회에서 운영하는 뇌성마비 장애아동의 재활시설인 「요한의 집」이다.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50명 아동들이 10여명의 수녀님들과 30여명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재활을 위한 힘찬 삶을 살고 있다.

어린 시절 필자는 소꿉놀이를 좋아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보고 싶어진다. 어릴 적 동심의 세계가 무척이나 그림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교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50이 넘어버린 건축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이들을 보면 귀여워서 말을 붙이고 나이를 묻고 장난치기를 좋아한다.

평소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은 터에 1990년 박병윤 신부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때 뇌성마비 장애 아동들과 노인들을 동시에 보살피는 사업계획이 추진된 것이다. 「요한의 집」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뇌성마비 장애 아동들을 가진 부모들의 나이는 젊지만 장애 아동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없고, 장애 아동은 감추어진 상태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불운을 겪는다.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날로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사회로 빠르게 변하면서 자식들과 부모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커지기만 한다. 해결 방안으로 평신도는 뇌성마비 장애자관과 양로원을 건립하고, 성직자와 수도자가 장애 아동들과 노부모를 맡고, 어려움이 해결된 가정의 부모들은 열심히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환상적인 사업 계획이었다. 장애아동들은 장애자관에, 노부모님은 양로원에 모시어 부모와 가정을 떠난 뇌성마비 장애 아동들은 수도자의 도움을 받아 재활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노부모님들은 장애 아동들을 돌 볼 일감을 받고 동시에 자식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부모를 떠난 아동들은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노부모님들은 여생을 봉사하면서 뜻깊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서울 봉천동 소재 삼육 재활원 시설을 견학하였다. 그 날 비둘어지고 꼬여진 불쌍한 장애 아동들의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기억이 난다. 귀여워 해주던 보통 아동들과 비교해 보면 비참하고 불쌍하여 가슴이 떨리기까지 하였다. 그때 필자에게 용기와 희망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주저 없이 뇌성마비 장애 아동들을 위해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바치게 해 달라고 간구했고 하느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많은 관심과 연구만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였다.

장애 아동들이 왜 태어날까? 원인은 수없이 많아 구체적으로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쾌락위주의 무절제한 생활과 부주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동들은 아무 의지도 없이 우리의 잘못으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여 치르고 있다. 개인적 성향과 신앙이 결부되어

장애 아동들을 더욱 사랑하고 예뻐하게 되었고, 아동들을 위해 할 일들을 정리하였다. 나 자신부터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작품에 임하는 자세도 달리 가져 주도록 주지시켰다. 신부님의 강론 말씀 중 우리가 그 장애 아동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말씀을 명심하면서 살고 있다. 몇 가지 결심을 했다. 계획 목표라고 해도 좋을 성심다.

첫째, 유럽지역 등 선진시설을 방문 후 설계를 하자. 국내 사례만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사회 복지 국가들의 사례를 둘러본 결과 정말 훌륭한 기능을 가진 건축물이었다. 일인당 소유 면적이 평균 20여 평이 되었다.

둘째, 수용이 아니라 재활을 위한 시설로 설계를 하자. 일반적 시설은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은 정말 문제가 있다. 희망이 없이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법만 얻어먹고 지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설계 및 감리는 봉사하자. 어려운 문제였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무실인데 설계와 감리를 봉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 채워 주시겠지 라는 우둔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결과는 정말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은 것을 채워 주심을 경험하였다.

넷째, 완공 후 시설 관리는 물론 재활의 성능은 나의 책임이다. 준공 후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까 궁금했다.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임을 느껴야지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 같았다.

다섯째,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아이들 옆에 있다. 많은 인력과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한다. 후원자도 모집하고 아동들과 함께 살기로 하였다.

설정된 계획 목표대로 최선을 다한 「요한의 집」은 1994년에 완성되었다. 가정을 박탈당한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고 전

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5세미만의 아기들을 위한 환경으로 시작하였다. 수용이 아닌 재활을 위한 시설인 만큼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화려해 보이기까지 했다. 연면적이 1,500여 평으로 건립되었고, 수도자들의 깔끔한 생활로 인해 정리정돈이 잘된 집이다 보니 부족함이 없는 집으로 오해를 받는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남루하고 추한 곳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다. 어려운 모습이 보여야만이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곤 하는가 보다. 그러나 재활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는 시설은 타 시설보다 훌륭하여야 하고 운영 경비도 많이 들어야만 한다. 인력도 많아야 하고 눈물겹도록 힘이 드는 것이다. 오히려 수용은 쉽다고 생각한다. 재활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를 모금운동의 일부분으로 시작했다. 관심을 가진 가정과 장애 아동들과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다. 막연히 후원금만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과 한 아이를 영성적으로 맺어주고, 그 아동을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것이다. 처음 맺어진 아동들을 지금도 계속 돌보는 가정이 많이 있다. 그동안 수녀님들과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재활의 의지로 아동들에게는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가정적인 건축물과 수용을 위한 건축물

홀 형태의 건축물로서 많은 베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지만 한 명이라도 가정의 중요성을 배려한 것이 좋았던 것 같다. 그러나 아동이 성장한 후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아동들이 자라면서 행동반경이 넓어지다 보니 홀 부분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바닥 난방이 되어 있지 않아 거실과의 온도 차이에 의해 겨울에 감기가 많이 걸린다고 한다. 난방비 절약을 요구했을 때 좀 더 강력히 부인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혼자 휠체어도 타고 경사로와 핸드레일의 설치여부가 쟁점이

었다. 뇌성 마비 장애아동들이 어떻게 일어 설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고 수직 동선은 엘리베이터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많은 면적 과 공사비 증가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훌륭한 치료 도구임을 감안하여 설득하였 다. 그러나 경사로 바닥에 난방 설치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난방 손실이 크다는 이유였는데 바닥 난방이 되어 있 면 더 좋은 치료 기구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절간처럼 조용하던 곳이 언어치료 결과 동대문 시장을 방불케 하고

방음을 소홀히 한 점이 아쉽다. 항상 말을 못하고 조용하지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함지르고 대화하고 노래까지 부를 줄이야.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물론 거실이 있고 방이 있기는 하다. 아 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줄이야 기 대 이상이었다. 또한 개인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안 된 점이 아쉬움으 로 남는다.

수 치료 공간이 그렇게 중요할 줄이야

장애 아동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수 치 료 공간이 있어서 잘 사용하여 왔지만 이제 는 아동들이 수영도 하게 되었다. 조그만 수 영장을 다시 만들어 수 치료와 겸용하고 있 다. 물론 기존 수 치료 공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요한의 집」에 대자 2명이 있다. 그 중 양태권이라는 7살 아동이 있다. 지능 은 좋지만 뇌성마비로 인해 걷기가 무척 어 려운 아이다. 그러나 수녀님들의 보살핌으 로 요사이 일어나기와 걷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 무척 똑똑한 아이다. 그 아이는 날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전화도 자주 한 다. 어느 날 그 아이와 대중목욕탕에서 목욕 하는 경험을 했다. 필자는 아버지와 같이 목 욕탕에 가 본 경험이 없었고, 딸만 있기 때 문에 아들과 같이 대중목욕탕에 가 본 경험 도 없다. 태권이 필자를 도와 준 것이다. 태권이 등을 밀어 주고 내 등을 밀어달라고 했다. 거울에 비친 태권의 얼굴은 그야말 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었다.

어느 날 수녀님께 온 메일을 열어 보니 태권이 보낸 메일이었다. 컴퓨터 부팅 시 켜준 것과 메일 전송 이외에는 아무것도 도 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태권이 메일을 쓰 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날 얼 마나 보고 싶어할까!

「요한의 집」 아동들은 이처럼 많은 재활 을 가져왔다. 보람이 크다.

10년 동안 경험해온 운영자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고 싶 다 고 한다. 노후 된 일부시설은 보수해야 하

고, 사춘기로 성장한 아이들을 위한 사적공 간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자립생활이 가능한 아동들에게는 기능적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에 맞는 생활보조기구도 제 공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바자회도 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도와준다고 했 다고 한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고 한다.

그때처럼 용기와 희망이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다. 「요한의 집」 기능 보강을 위해 도 와 달라고 나서고 싶다. 너무 고급스러운 집 이라고 등을 돌리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한 다. 재활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보강하여야 한다.

그동안 고귀한 인연으로 몸담아 봉사해 오면서 많은 고심 끝에 용기를 내었다. 더 훌륭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보기 위 하여 건축사로서 해야 할 더 큰 의미를 가 지고 싶다.

조용히 눈을 감는다. 하느님께서 부르시 는 날까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서 살아 보고 싶다. 圖

